

요즘은, 가족은 점차로 핵가족화 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앉아 즐겁게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시간이 거의 없다. 그래서인지 가족 사이에는 깊은 정이 잘 생기지 않게되는 경우가 많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는 회사일로 항상 바빠서 밤늦게 퇴근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가족의 얼굴을 보기조차도 힘들다. 이렇게 매일 바쁘고,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없이, 육체적으로는 피로만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옛날처럼 집에서 가사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사회에서 활동하는 직장여성이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집안일이나 아이들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아이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않고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자립심, 독립심을 기르게 될과 동시에 부모와의 사이에서는 점점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아이는 자신의 고민거리나 장래희망등을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 부모는, 사회의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 아이들이나 노인에게도 신경을 쓰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가족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여, 대화의 시간을 갖고 상호공유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부부는 이해와 배려로 애정을 쌓고 노인을 공경하고, 아이들에게 관심과 정을 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한다.